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짧은 글 깊은 생각

우리는 '변아웃'이라는 단어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고, 모든 것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변아웃은 현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탈진을 경험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험박 한마디에 그는 광야로 도망쳐 절망에 빠졌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뒤에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제는 다 끝났다”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로 그를 먹이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렘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자신이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동역자들을 세우고, 함께 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로서 본분에 충실하며 맡겨진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엘리야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고,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주는 성과나 기적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친 숨소리 옆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아웃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탈진을 아시고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그분은 기적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깊은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조용한 숨결 속에서 우리는 이미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도		다	같이
경배찬송	1장	다	같이
성서교독	23번 시37편	다	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80장	다	같이
기도		1부	최민관목사
		2부	오종수장로
성경봉독	에베소서2:8-9	인	도 자
찬 양	어느 때나	성	가 대
설 교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	박근상목사	
기도		인	도 자
찬 송	534장	다	같이
헌금봉헌	헌금함예	다	같이
헌금기도		인	도 자
광 고		인	도 자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이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금주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2:8.8

삼일예배 오후 7시 30분

합심기도
기도/ 천영순 권사
말씀/ 박근상 목사
에베소서교회론6:16 (76) 믿음의 방패(5) 아브라함
찬송/ 379장
주기도문

새벽기도회 오전 5시 2층 본당

말씀/ 박근상 목사 성경- 여호수아
* 주일은 새벽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소식

- 1.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2. 삼일예배에 교회론 강해가 계속됩니다.
‘믿음의 방패’(5)
- 3. 후보에 자료가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13)
- 4. 대덕구 성탄트리 점등식 오후6시 중리동 4거리 교통섬
- 5. 2026년 꽃꽂이 신청자 받습니다. (기념일, 감사한 일)

12월 계획.일정표

- 19일(금) 밤기도회
- 21일(주) 온세대연합예배
소그룹의 날
- 24일(수) 오후 7시 성탄죽하의 밤
- 25일(목) 오전11시 성탄절축하예배
- 31일(수) 오후11시 송구영신예배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박현규 오종화 2층 성미옥 김순미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최민관 오종수	윤태영/ 생일감사
다음주	1층 오종수 김실근 2층 성미옥 김순미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오종화 박 호	박헌철 전명숙/한해 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12,12), 1구역(천영순)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12,19) 2구역(이미선)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잠언 16장 32절 제 목 -마음을 다스려야 승리해요.	활동 1.12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2.성탄절 발표회 연습합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기도자 -최정선 선생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잠 16장 32절 제 목 -마음을 다스려야 승리해요.	1.12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2.감사프로젝트 계속합니다. 매일 수첩에 감사한 것 한 개 이상 적고 시편 23편 암송하기. 3.성탄절 발표회 연습합니다.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예배] 월초찬양기도회	1.예배 후에 성탄연습이 있습니다. 2.12월 14(주) 예배인도는 백가은자매, ppt는 조수 윤형제, 암송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3.12월 21일(주)은 11시 온세대연합예배와 예배후 성탄절아리하설이 있습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사회자 -한현구 형제 기도자 -강찬식 형제 설교자 -최민관 목사 본 문 -빌립보서 1:1~6절 제 목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1.성탄연습이 있습니다. 2.12/13(토) 10시 교회봉사 후 11시 청년부기도회 합니다.(5층 벤엘룸) 3.12/14(주일) 대표기도는 김금모형제입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00	청년부 주일 오후 2시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전도'에 열심일까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자기들끼리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행동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게 여기고 믿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한 방식으로 할 때에 오히려 반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보통 사람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고, 늙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다릅니다. 사람은 단순히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문 같은 것이며 문을 지나서도 존재는 계속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80년, 90년으로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시간 +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 전체로 봅니다.

인생이란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창조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 분으로 믿습니다. 전도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핵심이에요. 기독교인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을 준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 입장에서 예수님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길 안내자이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상처, 공허함을 해결하는 구조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경험은 어두운 방에서 해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불을 켜준 느낌입니다. 인생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분을 만났다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기준, 중심, 방향을 그분에게 맞추겠다는 선택입니다.

나의 이런 경험을 했으니,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나만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알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인생의 취향 문제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평소에 멀쩡해 보이던 도로인데 다리 중간이 무너져 있어서, 그대로 가다 보면 차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그대로 달려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인생은 저 사람 자유니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나요? 길로 가지 말라고 외치고 싶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인생과 죽음 이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 방향과, 죽음 이후까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

람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생각은 그 사람을 강제로 예수 믿게 만들 수 없을지라도 알리는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듣고 나서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꼭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하려고 한다면 우선 들어 볼 기회를 주어야 하지않겠는가? 그런데 안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독교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죽음 이후의 문제는 취미 선택이나 직업 선택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것보다, 오해를 감수하고라도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갖도록 해주고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해주고 길을 가르쳐 준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이 있고 감사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듣는 사람에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부담스러운 영업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듣기도 전에 먼저 거부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실적 쌓기 위한 영업처럼 보이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도 스스로 반성합니다.

우리는 설명보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도 이런 걸 가장 좋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믿으라고 하만 안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거절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안믿을 자유도 존중 해주고 후일에 궁금할 때 다시 만날 말미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이 믿고 경험한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떠밀려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종교적인 두려움이나 강요에 못이겨서 끌려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어 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전도에 열심일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전도’에 열심일까요?” “자신들이 믿고 경험한 예수님이 사람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아깝고 안타깝다고 느껴서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은 당신도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이런 진실을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다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눔식 소그룹 여호수아 15:13~19(12월 8일 본문)

담대한 요청, 믿음의 도전

하나님 찬양하기 * 내 평생이 가는 길 (새 413)

Focus :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믿음으로 구할 때, 약속된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여호수아 15:13~19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갈렙을 그니스 사람으로 소개합니다(14:6). 그니스(그나스)는 에서의 후손 중 한명입니다(창 36:11). 갈렙은 본래 에돔 족속인데, 애굽에 정착한 그니스 족속 가운데 일부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보입니다(출12:38). 갈렙은 에돔 출신임에도 유다 지파에 속해 충성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한인물이었습니다. 그는 80세에도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자신의 기업으로 취했습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준 분깃(기업)은 무엇인가요?(13절:참조, 14:12~5)

적용과 나눔

하나님의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끝까지 감당할 사명은 무엇인가요?

2. 관찰과 묵상

아버지 갈렙에게 네겟 땅을 받은 약사는 또 무엇을 요구했나요? 갈렙은 딸의 요청에 반응했나요?(18~19절)

적용과 나눔

갈렙의 믿음은 딸 약사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약속을 확장하고 누리도록 나는 어떤 본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말씀 다지기

하나님은 세상의 거인이나 어떤 대상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작게 보면, 두려움을 주는 현실과 나의 한계가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갈렙처럼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태산 같은 문제도 넘어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자녀고서 아버지께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받은 복을 다른 이들에게 유통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 남북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엡 1:10)을 생각하며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에 교회가 중심 역할을 하도록 기도합시다.
- 폴란드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 정부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른 정치를 펼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같이 흐르도록 기도합시다.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Diane Ball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헌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남기성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국동방송(FEBC)	매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주(토) 오전 10시 50분(로렘나무)